

정원오 측 "'부동산 지옥' 만든 오세훈, '기억상실형' 남 탓만 반복"

등록 2026.05.06 09:24:39 | 수정 2026.05.06 09:58:23



[서울=뉴스시스] 최진석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정원오의 찾아가는 현장 잠실야구장편에서 김인식 전 감독을 비롯한 서울 연고지 야구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6.05.05. myjs@newsis.com

[서울=뉴스시스]권신혁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6일 출범 예정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의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두고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할 부동산 시장의 파탄을 두고 파렴치한 '기억상실형' 남 탓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미 정원오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오세훈 후보, 책임회피 생떼 쓰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가) 어제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는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서울 주택시장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지난해 2월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격을 해제해 부동산 투기 심리에 불을 지핀 장본인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전임 시장 탓이라는 해묵은 레퍼토리도 이제 민망하다"며 "정비구역 해제의 씨앗을 뿌린 건 오 후보"라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부진도 코로나와 러우 전쟁을 탓하는데 '빌라 불신'을 사회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심어준 분이 오 후보"라며 "'청년안심주택 2.0'을 말하기 전에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부터 내놓는 것이 최

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실 왜곡과 남 탓으로 4선 시장의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며 "망가뜨린 서울의 주거 사다리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